

지옥(드라마 시즌 2)

1. 개요[편집]

지옥이 만연한 세상
그들이 부활했다

2024년 10월 25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지옥의 두 번째 시즌.

NETFLIX 시리즈

지옥 2 (2024)

Hellbound 2

지옥(드라마 시즌 2) 메인 ...

장르

공포, 스릴러, 미스터리, 서스펜스, 오컬트, 다크 판타지, 코즈믹 호러,
디스토피아

공개일

부산국제영화제 아이콘 2024년 10월 3일 (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로고 2024년 10월 25일

회차

6부작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와우포인트, 미드나잇 스튜디오

제

작

진

연출

연상호

각본

연상호, 최규석

원작

연상호, 최규석의 웹툰 《지옥 2:부활자》

출연

김현주, 김성철, 김신록, 임성재, 문소리, 문근영 外

촬영 기간

2023 년 6 월 1 일 ~ 2023 년 10 월 23 일

독점 스트리밍

NETFLIX ▶

시청 등급

영등위 18 세이상 2021 청소년 관람불가

링크

유튜브 아이콘 | 인스타그램 아이콘 | X Corp 아이콘(블랙)

유튜브 아이콘 | 인스타그램 아이콘 | X Corp 아이콘(블랙) Netflix K-Content

4. 등장인물

1. 개요 2. 상세 3. 작중 행적

3.1. 시즌 1

3.1.1. 진실

3.2. 시즌 2

4. 어록 5. 기타

2.1.1. 정진수[편집]

새진리회 초대 의장 / 교주

정진수

鄭晉守 | Jung Jin-soo[B]

지옥(드라마 시즌 2) 캐릭터...

지옥 캐릭터포스터 정진수

소속

새진리회 (의장 / 교주)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시즌 2 1 화 ~ 6 화

배우

시즌 1 유아인, 신동민(아역), 박상훈(학생역)

시즌 2 김성철, 유지완(아역)

더빙

일본 국기 토리우미 코스케

미국 국기 진 흥

새진리회 초대 의장 / 교주

정진수

鄭晉守 | Jung Jin-soo[B]

지옥 캐릭터포스터 정진수지옥(드라마 시즌 2) 캐릭터...

소속

새진리회 (의장 / 교주)

등장회차

시즌 1 1화 ~ 3화

시즌 2 1화 ~ 6화

배우

시즌 1 유아인, 신동민(아역), 박상훈(학생역)

시즌 2 김성철, 유지완(아역)

더빙

일본 국기 토리우미 코스케

미국 국기 진 흥

1. 개요

2. 상세

3. 작중 행적

3.1. 시즌 1

3.1.1. 진실

3.2. 시즌 2

4. 어록

5. 기타

1. 개요[편집]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지옥》의 주인공.

2. 상세[편집]

사이비 종교 새진리회[2]의 창시자, 초대 의장, 또는 교주. 세간에 알려진 사이비 교주의 이미지와 달리,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에 사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

3. 작중 행적[편집]

3.1. 시즌 1[편집]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보육원(천사원)에서 성장했고, 살아갈 의지없이 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하며 20 살이 되길 기다렸다가[3] 혼자 죽으러 떠난 티베트 고원에서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시연을 목격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지금껏 신의 자취를 쫓아왔다고 한다. 극중 시간으로부터 10년 전(2012년)부터 새진리회라는 신흥종교를 창설하고 '신의 의도'를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알려오고 있었지만, 세간으로부터 사이비 종교 취급당하며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4]

그러던 중 2022년 11월 10일 백주대낮에 합성역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주명훈이 정체불명의 괴물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그의 행보가 주목을 받게 되고, 곧이어 박정자의 시연까지 지상파로 전국에 생중계되며 삼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된다. 주명훈의 시연이 일어난 날 저녁, 신의 시연을 살인사건이라며 조사하러 찾아온 진경훈 형사와 대화를 나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자율성"이라는 진경훈에게 "형사님의 아내를 죽인 범인은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해 침묵하게 만든다. 고지를 받고 상담받으러 찾아온 박정자에게 30억원을 대가로 시연 현장을 생중계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중재하러 찾아온 진경훈, 민혜진과 대립하며 신의 의도를 재차 설파한다. 진경훈의 딸인 진희정을 포섭하여 진경훈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 희정의 눈 앞에서 소각로에서 화장시켜 시연을 당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박정자의 시연이 전국에 생중계되며 시연이라는 현상이 실제함이 증명되자, 정진수는 TV 인터뷰에서 "나는 신의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며 은퇴를 선언하고 잠적한다. 그리고 자신이 기거하던 고시원을 찾아와 연락이 안 되는 희정을 찾던 진경훈을 자신이 성장했던 보육원으로 불렀다.

3.1.1. 진실[편집]

사실 정진수 역시 20년 전에 고지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진경훈에게 털어놓고,[5] 자신은 살아오는 동안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으며[6] 고지와 시연이 꼭 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랜덤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에 가까운 것이라고 전말을 밝힌다.[7]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폭동과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올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괴한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벌어지고 있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재해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재해가 벌어진 이후의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재해가 아닌 신이 인간의 죄를 벌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를 선동했다. 이런 일은 벌인 경위는 극한의 공포에 의해 행동이 통제되어 올바르게 살 것이라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8] 또한 자신의 시연을 기록하여 세상에 알리고

희정이를 살인죄로 체포하여 원래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님 딸을 지키기 위해 입 다물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맡긴 뒤[9] 최후에는 나타난 지옥의 사자들에게 의해 앓은 자세로 시연을 당한다.

티저 포스터에서 사자들 앞에서 앓은 자세로 불타 죽는 사람은 정진수였던 셈. 사실상 시연을 이용해 '신이 행하는 시연은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함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를 새진리회 광신도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의 죽음은 진경훈과 소도 조직원, 김정철 후임 의장만이 알고 있을 뿐, 세상에는 세계여행을 하며 새진리회의 교리를 전파하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김정철이 정진수와 의 약속을 지켰는지 4년 뒤 건설된 새진리회 본부 시연장에는 정진수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벽화가 그려져있고,[10] 정진수의 동상이 있는 등 우상화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신급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시즌 2[편집]

Play: Video

박정자와 마찬가지로 시즌 2에서 부활한다.[11]

자신의 생전 과거의 현장에 있던 인물들[12]이 되어 매년 지옥의 사자들에게 끊임없이 시연을 받는 지옥에 8년간 시달리다가 박정자에 이어 부활한다. 보육원 건물에서 빠져나와 헤메다가 우연히 나타난 듯한 천세형이 그를 발견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 보살펴준다.

천세형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기가 죽은 동안 새진리회의 행적, 고지받고 시연당했으나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아기의 존재, 박정자가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천세형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부활을 기다리며 감시하다가 일부러 납치해 데려왔음도 알게 된다.[13] 그 후 결박되어 차를 타고 소도에 넘겨지려 가던 중 천세형이 들려준 햇살반 선생님 오지원의 이야기를 듣고, 박정자를 만나고자 천세형을 감언이설로 속인다.[14][15]

결국 자신의 말에 넘어간 천세형 덕분에 화살족의 리더 바람개비와 접선하고, 화살족을 선동해 새진리회 대부흥회 현장에 난입한다. 김정철 의장이 화살족들에게 집단 린치당해 사망한 후 그의 휴대폰에 이수경과의 통화내역이 수 차례 있었음을 발견하고, 새진리회의 대부흥회와 소도의 난입이 새진리회와 소도를 이용해서 통제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그녀의 계략임을 간파한다. 이수경을 협박[16] 하고 알아낸 소도의 목표 차량에 화살족을 잠복시켜 김성집과 민혜진을 제압하고 드디어 박정자와 만나게 되는데...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1027 215716

도망치려는 박정자를 붙잡고 자신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박정자는 자신의 지옥과 정진수의 지옥이 다르며 지옥의 사자는 정진수 본인의 안에 있다고 말한다.[17] 박정자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정진수는 지하주차장의 볼록거울에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지옥의 사자를 또 한 번 보고 기겁했다가, 이후 아무 일이 없는듯 멀쩡한 거울 속 모습을 보고 안도한다. 그러나 곧 자신의 몸안에서 지옥의 사자의 몸으로 보이는 축수들이 퍼지며 처음에는 한 팔을, 그 다음엔 다른 팔다리를 장악하다가 이내 머리까지 뒤덮여 완전한 지옥의 사자로 변해버리고, 홀연히 사라진다.[18][19]

정진수가 지옥의 사자가 되어 자취를 감춘 후 이수경을 포함한 수만 명[20]의 사람들에게 전국적인 대규모 동시 고지가 내려져 세상은 또 한번 혼란에 휩싸인다.

4. 어록[편집]

이제 우리에게, 악을 방치할 권리는 사라졌고 선을 행할 의무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우리 인간이 해야할 일입니다.

지금 신께서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신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형사님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네요. 자율성이라 그 살해범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법의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 살해범은 지금 참회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공포 때문에 나는 더 바르게 살 수 있었어요. 신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공포를 선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포는 세상을 전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들 거예요. 그 공포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예요.

2.1.2. 민혜진[편집]

소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민혜진

閔惠珍 | Min Hye-jin

지옥(드라마 시즌 2) 캐릭터...

소속

소도법률사무소 (변호사 / 시즌 1 1 화 ~ 3 화)

비밀단체 소도 (수장 / 시즌 1 4 화 ~ 시즌 2 6 화)

가족

어머니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6 화

시즌 2 2 화 ~ 6 화

배우

김현주[2]

더빙

일본 국기 카이다 유코

미국 국기 아리아 송

사냥꾼이 더 낫지 않아요? 일식을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거나 잡는
제사장보다는요.[3][4]

소도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새진리회 초창기부터 그들의 피해자를 변호하고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새진리회에서 시연 생중계를 제안받은 박정자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으로 극중 사건에 말려들기 시작한다. 정자의 어린 자녀들을 밴쿠버로 도피시키는 등 그녀를 돕고자 형사 진경훈과 백방으로 노력하나, 정자의 시연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생중계되어 새진리회와 새진리회를 추종하는 화살촉의 세력이 힘을

얻고 만다. 이때 화살촉 리더 이동욱이 생중계에서 절을 하지 않은 소도 측의 모습을 저격하며, '신에게 반기를 드는 역적 분자'로 낙인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당한다. 노모를 모시고 캐나다로 도피하는 길에 법률사무소에 잠시 들르나, 이미 시연 사건 이후 사무실은 쑥대밭이 된 데다 곧바로 사무실을 습격한 화살촉 패거리에게 어머니와 함께 무자비하게 구타당한다. 이후 어찌저찌해서 겨우 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가지만, 정작 그들을 알아본 의료진이 어떤 의료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고의로 방치해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가족을 잃는 비극을 당한다.

그뒤 미래종교의 김정철 목사가 정진수 의장에 대해 제보를 하며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그를 찾아간다. 이윽고 진수가 자신이 고지받았음을 고백한 녹취를 듣게 되지만, 사실 이는 진수가 파놓은 함정이었고[5], 곧바로 현장을 습격한 화살촉 패거리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뒤 인근 도랑에 유기된다.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으나[6] 4년 뒤 2026년 시점인 4화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등장한다.[7] 그리고 과거 화살촉에게 구타를 당했던 것 때문에 이마에서 눈가까지 커다란 흉터가 생겼다. 4년간 세상에는 사실상 사망자 취급으로 잊혀진 상태에서 자신의 소속이었던 사무소 이름을 딴 '소도'라는 단체를 만들어 고지를 받은 사람을 행방불명 상태로 처리시켜주거나 사고사로 위장해주는 등 새진리회에 맞서는 활동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었다.

배영재와 송소현의 아기 튼튼이가 고지를 받으며, 즉 새진리회의 교리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으로 다시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튼튼이의 시연을 생방송으로 내보냄으로써, 죄인들만 시연을 당하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도 시연을 당한다는 사실을 밝혀 새진리회의 거짓 주장과 선동을 폭로하려 한다. 작중 자신의 은신처로 쳐들어온 화살촉 인원들과 격투를 벌여 때려눕히고 탈출하는데, 적어도 4년 전보단 비교가 안 되게 강인해진 모습을 보인다[8]. 현재 새진리회가 득세하는 세상이 온 것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들이 득세하는 기점이 된 정자의 시연을 설마 진짜겠어 하며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진수의 정체를 더욱 빨리 세상에 알렸다면 현재의 세상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며 자책한다.

영재와 함께 새진리회 본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소현과 튼튼이를 빼내는데 성공하고, 새진리회의 추적을 피해 현재 화살촉을 탈퇴하다시피 한 동욱의 집으로 간다. 다만 그가 과거에 새진리회 추종자였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화살촉 무리를 선동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튼튼이의 시연 시간을 알고 새진리회에 전화를 하며 다시 광기에 휩싸이고, 소도 사람들을 죽이고 달려들자 소현과 튼튼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욱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인다.

그 사이 시간이 다 되어 원래 계획했던 장소 대신 동욱의 집이 있는 허름한 아파트 중앙 마당에서 튼튼이의 시연이 시작된다. 원래 시연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었지만, 차마 딸이 죽는 걸 볼 수 없던 소현이 튼튼이를 안고 죽음의 사자에게 내던져져 부상을 당한다. 시연이 끝난 후 영재와 소현이

튼튼이를 가운데 둔 채 끌어안고 새까맣게 탄 것을 보고 세 식구 모두 죽었다고 여기며 절규하는데, 놀랍게도 튼튼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동욱이 나타나 튼튼이를 죽이려는 걸 막으려다가 쓰러져 그의 칼에 찔릴 위기에 처하는데, 마침 동욱의 시연이 시작되어 그 또한 죽고 만다. 뒤늦게 새진리회 직원들이 몰려오지만 시연을 본 주민들이 몰려들어 막아준 덕에 튼튼이를 안고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 택시를 탄다.

여담으로 본작의 등장인물 중 지옥의 사자들과 함께 1 화부터 6 화까지 다 나온 인물이다.

시즌 2에서는 2 화에 경훈과 그의 딸 진희정이 새진리회에게 납치당하기 직전에 두 사람을 구하며[9] 등장한다. 버려진 유스호스텔 건물 지하를 아지트 삼아 동료 몇과 함께 배재현(튼튼이)을 숨겨둔 채 지내고 있다. 어린 재현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나 정자가 부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그녀를 구출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같은 소도 간부들끼리 생각과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것에[10] 답답함과 회의감 또한 느낀다. 결국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자를 구출하는 작전을 밀어붙인다. 우여곡절 끝에 정자를 구해 가족에게 떠나보내고[11], 자신은 아지트로 돌아가 재현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난다.[12]

극중 전투씬 담당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단봉을 기본 무기로 쓰는데, 시즌 2의 2 화에선 카 체이싱 도중 앞차를 들이받은 채 룸미러를 뺏아 엑셀을 고정시킨 후 곧바로 앞유리창과 앞차의 뒷유리를 깨고 건너들어가 회정을 납치하려는 새진리회 잔당을 모조리 때려눕히고, 컨트롤을 잃은 차가 건물 벽에 들이박히기 직전 회정과 차 밖으로 몸을 던져 쓰레기봉투 더미 위로 뛰어내리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션 씬을 보여준다. 시즌 2에서의 액션 씬 강도는 이전 시즌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마지막 6 화의 폐차장 전투씬도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 공세에 밀린다 싶더니 유연하게 복싱 스타일로 전환한 후 상대방을 정신없이 몰아붙이다가 서브 미션으로 이행해 트라이앵글 초크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살인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매력 포인트.

평가하자면 민혜진은 새진리회와 화살촉에 대항하여 고지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신념과 정의감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정작 본인도 남을 돕는데만 안주할뿐 세상을 안정시키겠다는 확실한 계획도 목표도 없이 현실을 외면한채 이상만 내세우는 독선적인 이상주의자로 볼 수 있다.

2.1.3. 박정자[편집]

국내 3 호 죄인[A][스포] → 부활자

박정자

朴靜子 | Park Jung-ja[B]

지옥(드라마 시즌 2) 캐릭터...

출생

1984 년 11 월 10 일[16]

직업

노점상

가족

박은율 (아들)

박하율 (딸)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6 화

시즌 2 1 화, 3 화 ~ 6 화

배우

김신록[17]

더빙

일본 국기 시부야 하루카

미국 국기 캐롤라인 칸

Play: Video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끝없는... 절망감. 영원히 달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고, 그리움과 절망감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느낌.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이 다른가 봐요.

국내에 2 번째로 고지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 미혼모이며 부친이 서로 다른 두 아이를 두고 있다[18].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자식들의 생일 축하에 기뻐하던 도중 천사로부터 5 일 후 15 시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는다. 그녀에게 고지 순간을 찍은 영상[19]을 건네받은 새진리회 의장 정진수는 지옥에 가는 순간을

생중계하자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리가 옳음을 증명코자 한다. 그러면서 대가로 30 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그녀는 소도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 민혜진을 만난다. 이후 혜진과 형사 진경훈의 도움을 받아 시연의 영향으로 자녀의 신상은 물론 자신의 신상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조건에 새진리회와 계약을 맺는다.[20] 그러나 진경훈의 동료 형사가 화살촉을 추종하면서 일가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해버리고, 그녀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식들의 신변까지 위험에 빠지고 만다.

다행히 혜진의 도움으로 두 아이는 무사히 밴쿠버로 망명하고, 자신은 남겨진 채 생중계에 알맞게 개조된 집에서 시연을 기다린다. 새진리회 신도들을 비롯하여 방송국, 경찰까지 현장에서 그녀의 시연을 기다리고, 천사가 죽을 거라 고지한 시간이[21] 다다르자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시연을 받는다.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하자, 새진리회의 교세는 시연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때보다 훨씬 크게 힘을 입기 시작한다. 4년 후 그녀가 시연을 받았던 자택은 새진리회에 의해 리모델링되어 성지로 여겨졌고, 또한 사자들에 의해 불타버렸던 시신 위로 유리관을 씌워 사람들에게 전시한다.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 시즌 1의 마지막 화면이 그녀의 시신이 보관된 전시관을 비추는데, 시신이 조금씩 흔들리며 주위의 잿더미들을 흡수하면서 형체를 갖춰가더니 사망한 그녀의 모습이 온전한 형태로 소생되어 거친 호흡을 하는, 그야말로 부활하는 장면을 끝으로 이야기가 막을 내린다.[22] 원작에서는 없던 장면을 추가한 것인데 인터뷰에 의하면 드라마판의 흥행을 알 수 없었기에 일단 웹툰에서는 이 시점에서도 완결을 낼 수 있게 결말을 만들었고 드라마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흥행할 거라 감이 오자 시즌 2의 떡밥으로 추가했다고 한다.

작중 묘사를 보면 자식들이 이부남매임에도 별다른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어머니를 극진히 아끼는데다가, 그녀 또한 목숨보다 자녀들을 먼저 걱정하는 모성에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한 건 아이의 아빠들이고 그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막는 엄마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하긴 한다. 다만 이 죄의 범위가 해당 사건 이후 용서와 관용이 없어진 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나쁜 짓만 해도 죄를 지은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시즌 1 후반부인 4 ~ 6 화에서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 시연 행위가 사실은 신의 천벌이 아닌 미스터리한 초자연적, 초현실적 재난이라는 해석의 새로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박정자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보다는 '부활한 박정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더 주목받고 있다.

원작인 웹툰과의 연출 차이로 인해 캐릭터성이 바뀌었는데 웹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고[23] 부드럽고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캐릭터였다면, 역할을 맡은 김신록 배우의 드라마판에서는 사뭇 날카로운 이미지로 시청자가 볼 때 '저 인물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인상을 주어 작품에서의 주 이야기 흐름과의 연결성이

더 강조되었다. 거기에 배우의 감정적이고 불안한 연기가 합쳐져 최규석 작가도 인터뷰에서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즌 1 결말에서 4년이 흐른 시점인 시즌 2에서는 부활 직후 4년간 새진리회에 감금[24]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정무수석인 이수경이 부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새진리회 의장 김정철을 만나고, 그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해듣는데, 새진리회 측은 그동안 그녀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아내려 애썼지만, 부활 순간부터 줄곧 정신이 온전치 못한 탓에 막상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한다.

화살촉 무리들의 기세를 꺾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수경은 정철에게 부활한 그녀를 통해 새로운 교리를 전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래서 이른바 새교의 선포식이라는 제목의 정치적 행사가 계획된다. 이 발표를 기점으로 죄인이 아닌 부활자로 명명시키고, 심지어는 각 전문가를 고용하여 의상과 분장까지 컨설팅해서 그녀를 단상 위에 올린다. 새진리회가 짜고친 대사를 읊으려는 순간, 혜진과 소도가 그녀를 구출하고자 행사장을 뒤집고 진수의 계책에 휩싸인 화살촉 또한 본당으로 습격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구출 작전이 성공하고 혜진의 도움으로 마침내 자식들에게 무사히 돌아간다.

부활 이후 다른 이의 죽음을 예언하는 능력이 생겼다. 다만 정확한 사망 날짜나 원인 등은 모른 채, 사망하는 순간의 단편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식이다.[25][스포 2] 또한 예측이 반드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혜진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27]

시즌 2 정자의 대사로 유추해보았을 때 진수가 겪은 지옥과 그녀가 겪은 지옥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2.1.4. 진경훈[편집]

서울서북경찰서 형사

진경훈

陳京勳 | Jin Kyung-hun[B]

지옥 캐릭터포스터 진경훈

소속

서울서북경찰서 강력 4 팀 (형사)

가족

진희정 (딸)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시즌 2 1 화, 2 화, 6 화

배우

양익준[31]

더빙

일본 국기 사카키 코우스케

미국 국기 데이비드 S. 정

'뜯겨 죽을까 봐 선하게 산다'.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대로라면,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요?

시즌 1 전반부의 주인공. 서울서북경찰서 강력반 형사이자 진희정의 아빠. 아내는 희정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살인범에게 살해당했다. 아내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박혀 있으며, 희정이 삶의 전부이다. 백주대낮에 주명훈[32]의 시연이 일어나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새진리회에 대해 캐기 위해 의장 정진수가 주최한 집회를 찾아간다. 거기서 희정이 새진리회 집회 현장에 있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과 위험을 느끼고, 그 영향으로 진수의 말에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고지를 받은 박정자를 소도법률사무소 민혜진 변호사와 협력하여 돕던 중 정자의 시연 며칠 전 회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좌불안석하다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이 살해된 현장 근처 CCTV에서 딸의 모습을 목격한다. 이어서 진수가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춘 옷장[33]을 보고 분노하여 그의 고시원에 찾아가지만 허탕만 치고, 몰려든 광신도들에게 린치까지 당한다. 그러나 진수에게 걸려온 영상 통화로 인해 린치에서 벗어나고, 그가 보낸 주소로 이동해 진수와 대면한다.

자신의 말을 한 뒤 희정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제안에 진수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자신은 이미 20년 전에 고지를 받았고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심판이 신의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정진수 자신이 그렇게 믿게끔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전말을 듣는다. 10분 뒤 지옥에 간다는 그의 유언[34]을 듣고 진수의 죽음을 목도한다. 집으로 돌아와 그의 말대로 기다리고 있던 딸과 재회하고 서로 포옹한 채 눈물을 흘리며 등장 끝. 이후 전개는 4년 후로 이어지며, 새진리회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신도로 삼고 검경 못지않은 권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가 결국 진수의 죽음을 묻어둔 채 침묵을 선택했음을 암시한다.

첫 등장이 뻥질대고 커피만 타먹는 장면 때문이라 무능하게 비쳐지나, 이후 행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선 고시원을 돌파하여 기어이 진수의 방으로 들어가고, 진수가 정자의 죄를 자세히 추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확신이 그에게 없음을 간파해내는 등, 상당히 유능하고 끈기 있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이외에도 진수의 그럴 듯하지만 궤변으로 가득찬 교리 속 허점을 콕콕 집어내 비꼬는 걸 보면, 지적 수준 또한 상당해 보인다. 작중 시점까지는 가족이 살해당한 트라우마로 일할 의욕을 아예 잃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유능함을 보여줄 만한 의지 또한 없었는 듯 하다.

시즌 2 의 1 화에서 정무수석 이수경과 새진리회 의장 김정철의 접촉으로 그의 존재가 다시 언급되며, 신분 세탁을 한 채 화살촉과 새진리회의 추적을 피해 시한부를 선고받은 희정과 함께 숨어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진수가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다 보니, 진수의 행방을 찾는 새진리회의 목표물이 되어 희정과 함께 납치당할 뻔하지만, 때마침 혜진과 소도 사람들이 나타나며 위기를 면한다.

이후 대화에서 혜진이 진수가 20 년 전에 고지 받은 자란 사실을 왜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걸 공개했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없으며, 희정의 세상은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을 희정이 믿음을 부수는 데 쓰고 싶지 않았다"고 답한다. 그리고 혜진에게 진수가 시연을 받은 장소를 알려준 후 소도가 제공한 은신처에 희정과 함께 머무른다. 이후 마지막 6 화에 딸의 임종을 지킨다.

이전 시즌에 비해 시즌 2 의 비중이 대단히 줄어들었는데, GV 에서 이것에 대해 질문을 받은 연상호 감독은 경훈 부녀의 서사가 이미 시즌 1 에서 완결돼서 결말을 내는 느낌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아무래도 시즌 3 가 나와도 더 이상 출연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 시즌 1 주요 인물[편집]

2.2.1. 배영재[편집]

NTBC 프로듀서

배영재

裴英宰 | Bae Young-jae

지옥 캐릭터포스터 배영재

소속

NTBC (프로듀서)

가족

송소현 (아내)

배재현[35] (딸)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배우

박정민[36]

더빙

일본 국기 후쿠다 켄지

미국 국기 스티븐 푸

Play: Video

사람들 겁주고 벌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런 데가 하나 더 있죠.
지옥이라고.[37]

애가 죽는다고 애가! 한 달도 안 된 애가 고지를 받았어. 당신들이 새진리회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NTBC 방송국 소속 PD. 소현의 남편이며 이제 막 튼튼이라는 태명의 딸을
낳았다. 4 회에 등장하며 새진리회의 다큐멘터리 캠페인 편집을 맡았다가
편집본을 본 유지 사제가 배경 음악[38]을 지적하자 방송국을 외주 하청업체
취급한다고 불만을 드러낸다. 동시에 시연을 당한 사람 집에 락커로 낙서하며
가족들을 폭행하고, 애가 자기 아빠를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지금
세상이야말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나며 새진리회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다. 이에 유지 사제가 지금이 범죄율이 급감한 세상이라 운운하자,
화살촉의 범죄를 들어 사람들을 겁주고 벌춤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지옥과 뭐가 다르냐고 쏘아붙이기도 한다.

이후 공동연출을 맡았던 동료 강준원이 갑작스레 이탈하여 새진리회 다큐를 혼자
다시 손보게 되고, 편집을 마치고 뒤늦게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던 중
강준원의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수상함[39]을 느낀다. 그러다 준원이 갖고
있던 사채업자 명함에 휘갈겨져 있던 양평낙시터 주소를 떠올린다.

양평낙시터에서 시연을 기다리고 있던 준원을 찾아내고 극한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를 진정시키고자 하지만, 결국 준원의 시연을 눈앞에서 목격한다. 곧이어
소도 직원들이 들이닥치는데, 이때 자사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등장하는

공형준 한국대 교수가 마취 주사를 놓으며 오늘 본 광경은 그냥 잊으라 충고한다.[40]

마취에서 깨어난 뒤, 드디어 오래동안 기다리게 했던 아내 송소현의 산부인과로 찾아간다. 하지만 소현으로부터 아기 튼튼이에게 고지가 내려지는 영상을 건네받고 충격에 휩싸인다. 이윽고 자신이 전날 밤 양평낙시터에 소도 사람들과 함께 왔던 교수를 떠올리고, 그를 찾아가 새진리회와 고지에 대한 진실[41]을 듣는다. 그리고 튼튼이가 고지를 받는 영상을 교수를 비롯한 소도 인원들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뒤 세상에서 잊혀진 민혜진 변호사를 대면하는데, 새진리회의 교리를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기의 시연을 생중계하자는 그녀의 요청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소도와 새진리회와 다를 게 뭐냐며 폭언을 퍼붓는다.[42] 그러다 이후 교수에게 그의 딸이 눈앞에서 고지[43]를 받고 시연을 당한 사연을 듣는다. 이튿날 아침 화살촉에 의해 교수가 살해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혜진에게 전화를 받아 새진리회에 발이 묶인 소현과 튼튼이를 빼내고자 함께 새진리회 본부로 향한다.

혜진이 마련한 은신처에 도착하며, 소현과 상의 끝에 결국 튼튼이의 시연 생중계를 허락하고 망명 준비를 한다. 시연 장소로 이동하기 직전, 前 화살촉 리더 이동욱이 메시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소도 직원들을 습격해 살해한다. 자신은 혜진이 건네줬던 테이저건으로 동욱을 일시적으로 물리치지만 곧 추격당하여 난투 끝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기절한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자들이 나타나 소현이 튼튼이를 안은 채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자들에게 저항해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고 소현과 함께 몸을 묶어 그 틈에 튼튼이를 보호하려 한다. 끝내 함께 시연을 당하며 소현과 불타버리는데, 놀랍게도 둘 사이에 있던 튼튼이는 무사했다. 부모(타인)의 희생으로 아이(시연 대상자)를 지켜낸 것으로써 고지를 받은 대상자가 살아남은 첫 사례[44]이며, 현장의 목격자들과 휴대폰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연 대상자가 갓 태어난 아이라는 점에서 새진리회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새진리회의 교리 및 신이라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의문과 반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다.

시즌 2 에선 의외로 소현과 함께 광신도들 중에서도 광신도들인 화살촉의 교리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화살촉이 부부의 희생을 "신의 의도를 믿지 않고 비웃은 죄에 대해 하늘이 벌하고자 일부러 죄 없는 아이에게 시연을 고지했고, 이 둘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회개해 시연을 받으며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안 되지만 시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겐 그럴 듯하게 들리는 식으로 왜곡해 선동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행적을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되는 고인드립.

2.2.2. 송소현[편집]

송소현

宋昭賢 | Song So-hyun

지옥 캐릭터포스터 송소현

가족

배영재 (남편)

배재현 (딸)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배우

원진아

더빙

일본 국기 세토 사오리

미국 국기 재클린 미사에

방금 태어난 아기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없어... 뭐가 잘못된 거지, 영재야, 어? 아기가 무슨 죄를... 내가 죄인을 낳은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영재의 아내로 극중 4 화에 첫 등장.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기 튼튼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가기 어렵겠다는 영재에게 핀잔을 주고 당장 오기 어렵다면 동영상 찍어 보내주겠다고며 신생아 면회 시간에 몰래 폰을 들고 들어간다.

영재에게 보내줄 영상을 찍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튼튼이에게 4 일 후 지옥에 갈 것이라 고지하고, 그 순간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다. 이후 병실에서 낮이 나간 채 뒤늦게 온 영재에게 해당 고지 영상을 보여주고, "갓 태어난 아기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죄인을 낳은 거냐"며 오열한다.

영재가 공형준, 민혜진과 만남을 갖고 돌아왔을 때, 칭얼대는 튼튼이를 달래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날 30 년 만에 만났으나 경황이 없어 그때 위자료를 못받았는데 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런 어머니도 있는 거라는 영재의 말에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하며 저주했다고. 그리고 자신은 절대 그런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다짐했었다고 털어놓는다.

다음날, 영재가 출근한 사이 새진리회 본부에 찾아간다. 새진리회에 찾아갔을까 걱정하는 영재의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유지 사제에게 자신의 아기가 고지를

받았음을 털어놓고 만다.[45] 뒤늦게 정신을 차리지만 새진리회는 튼튼이를 빼앗아 가려 하고 다행히 그때 혜진과 소도 인원들이 나타나 난동[46]을 일으킨 덕에 튼튼이를 다시 찾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혜진이 수배한 은신처에서 결국 튼튼이의 시연을 중계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망명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동욱의 배신으로 튼튼이의 시연 중계는 물거품이 된다. 동욱을 피해 달아나다가 고지받은 시간이 되자 결국 은신처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기가 고지받은 사실을 알린다. 공개 시연은 허락했지만 정말로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튼튼이를 지켜 안고 이리저리 피해 도망친다. 마침내 영재와 함께 튼튼이를 감싸안아 보호한 채 시연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는다.

2.3. 시즌 2 주요 인물[편집]

2.3.1. 천세형[편집]

목격자

천세형

千世亨 | Cheon Sehyeong[C]

지옥(드라마 시즌 2) 캐릭터...

가족

오지원 (아내)

등장회차

시즌 2 1 화 ~ 4 화

배우

임성재

더빙

일본 국기 마츠카와 히로키

미국 국기 앤드류 리

신의 의도가 원지 알았다. 신은 지금 지옥을 이 세상으로 옮기려고 한다!

화살촉 햇살반 선생 오지원의 남편. 왼쪽 얼굴에 흉터[48]가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부부의 삶을 살아왔으나, 아내 오지원이 정진수의 광신도가 되고 이내 시연에 동참하다 죽는다. 그 때문에 정진수에게 커다란 증오를 품게되고, 소도와 손을 잡았다.[49] 정진수의 부활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정진수 부활 후 이송 과정에서 그에게 속아[50] 결국 소도를 배신하고 그를 구한 뒤 아내의 계정을 통해 화살촉의 바람개비와 연결시켜준다.

그러나 정진수의 의도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창한 의도가 아니라 부활자 박정자를 만나는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정진수에게 버림당한다. 종국에는 신의 의도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려는 것이라며 절규하다 정진수의 명령을 받은 화살촉들의 흥기에 척살당한다. 정진수에 의해 사랑하는 아내와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모두 잃고 본인도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 죽게 되는 불쌍한 인물.

하지만 다르게 보면 오지원이 정진수와 화살촉에게 점점 동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유약하고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정을 박살낸 정진수에게마저 놀아나는 모습을 보면 아내가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원수에게 이용만 당하는 등 자기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한 탓에 이런 결말을 초래해버린 감이 있다.시즌 2의 최고 발암캐릭터이자 고구마

2.3.2. 이수경[편집]

정무수석

이수경

李秀卿 | Lee Sugyeong[C]

지옥(드라마 시즌 2) 캐릭터...

소속

대통령 비서실[52]

등장회차

시즌 2 1화 ~ 6화

배우

문소리[특별출연]

더빙

일본 국기 유아 아츠코

미국 국기 줄리아 조

어디다 갖다 붙여 놔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이 정말로 오래 살아남아요. 절대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좇같은 지옥이 된다 해도 지옥을 지탱할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대통령의 정무수석. 이성적이고 유능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다. 화살촉에 의한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지속되자 새진리회와 소도를 이용해 공권력을 바로세우려 한다. 새진리회나 시연 현상에 대해선 존중이나 경외심은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김정철 의장 앞에서는 대놓고 '미쳐날뛰는 사이비보단 가만히 말 잘듣는 사이비가 나으니까'라며 비웃기까지 한다. 언제 어디서나 보온 텀블러를 들고다니며 음료를 마시는 버릇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권력을 회복하려는 인물처럼 보였으나 후대를 위해 미쳐버린 세상을 제어할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도 구축해보려고 노력하는 인물.[54][55] 소도의 김성집이 한 말에 의하면, 세상이 정상일 때는 원칙주의자인 훌륭한 정치인이었으나 이제는 변했다고 한다. 자기가 예전에 민혜진을 좋아해서 자기네 당의 비례대표로 공천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아 민혜진과도 인연이 있는 듯하다.[56]

여타 매체의 높으신 분들과 달리 새진리회와 공적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도 정장보다는 등산복 차림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연상호 감독은 GV에서 여기에 대해 시스템을 지키려는 사람이란 점에서 변화가 없는 산을 좋아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모든 일이 끝나고서 뒷수습을 지시하던 중 천사에게서 2년 후 19시에 사망하여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듣게 된다. 그외에도 전국에 걸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대규모로 고지를 내리며[57] 혼란이 벌어진다.

시즌 1 이 정진수가 벌리는 판이라면 시즌 2는 각 세력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이수경의 판으로 볼 수 있다. 연상호 감독도 이런 이수경의 캐릭터에 주목하였다고 하며, 이동진은 문소리의 연기력과 대사전달능력을 호평했다.

3. 새진리회[편집]

3.1. 김정철[편집]

새진리회 제 2 대 의장

김정철

金正七 | Kim Jeong-chil

지옥 김정철

소속

미래종교 (목사 / 시즌 1 3 화)

새진리회 (의장 / 시즌 1 4 화 ~ 시즌 2 6 화)

등장회차

시즌 1 3 화 ~ 6 화

시즌 2 1 화 ~ 6 화

배우

이동희

더빙

일본 국기 오오츠카 호츄

미국 국기 핑 우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김정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유지 사제[편집]

새진리회 사제

유지

兪智 | Yu-ji[B]

지옥 유지

소속

새진리회 (사제)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배우

류경수[59]

더빙

일본 국기 코바야시 치카히로

미국 국기 스티븐 오영

Play: Video

신의 원칙도 무시하고, 신의 의도도 무시한 채, 누굴 보고 사기꾼이라고.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시연을 피한 송소현의 아기와 민혜진 변호사를 데려가려는 것을 보고 '거짓말쟁이'들이라며 막아선 노인을 폭행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신이 아무 원칙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종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죄인들이 날뛸 거라고. 하하하하! 그 죄인들의 피해자들이 니네[60]들을 원망할 거야. 니네들은 죄인들이 죄를 짓게 한 방조자들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신의 원칙도 모르고, 신의 의도도 무시한 채...![61]

김정철의 하수인이자 새진리회의 행동대장. 지옥 후반부인 4~6화의 메인빌런으로 등장한다. 눈썹미가 상당히 좋고 영민한 스타일로[62] 김정철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비밀결사 '소도'를 일망타진하려 한다. 드라마에서는 고지를 받은 신생아 튼튼이가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남고 사자들이 살아남은 아기는 죽이지 않은 채 그냥 사라지는데, 민혜진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지자 이내 정신차리고 신의 집행을 방해한다며 경찰에게 저 여자를 잡으라고 악을 쓰다가 이를 지켜보던 한 노인의 "그만해라 이 사기꾼아"라는 발언에 이성을 잃고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한다.[63]이에 보다못한 경찰들이 그를 폭행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운 뒤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신의 원칙이 없어진 세상은 멸망한다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간다.

유지 사제가 노인에게 폭력을 가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은 의미 있는 장면이다. 민혜진이 말한 "세상을 다시 사람의 것으로 돌려놓는" 첫 번째 장면이다. 비록 새진리회가 언론과 공권력에 강한 입김을 볼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돌아다니는 정보 자체를 통제하고 탄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64] 유지 사제의 이 광신도적 폭행은 엄연한 자충수였고,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겉으로만 굴복하고 순응할 뿐 새진리회와 화살촉의 악행에 반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3.3. 사청 사제[편집]

새진리회 사제

사청

斯清 | Sa-cheong

지옥 사청

소속

새진리회 (사제)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배우

차시원[65]

더빙

일본 국기 타케다 타이치

미국 국기 그레그 천

유지 사제와 마찬가지로 김정철의 하수인. 다만 유지 사제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보아 부하 혹은 더 밑의 계급으로 보인다. 유지 사제에 비하면 날카로운 모습은 부족한 편이라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다가 유지에게 갈굼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작중에서는 화살촉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마지막 화에선 사자들의 시연에서 살아남은 튼튼이를 보고 새진리회 시대의 종말을 인지한 듯 체념한 표정을 지었고, 경찰에게 연행되는 유지 사제를 외면한 채 남은 사제들을 이끌고 철수한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던 유지 사제랑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애초에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새진리회에 가담한 것은 아닌 듯하다.

3.4. 의장단[편집]

의장단

새진리회의장단

소속

새진리회 (의장단)

등장회차

시즌 1 5 화 ~ 6 화

배우

왼쪽 부터 장하란, 남진복, 김미수, 한혜수, 김정호

새진리회의 간부급인 의장단 사제들. 일반적인 장로회의 장로들과 비슷하며 의장 김정철과 함께 교단의 대소사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격적인 등장은 고지받은 갓난아기의 등장으로 교단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유지 사제가 다급히 의장단 회의를 열면서부터이다. 아기가 고지를 받은 것에 대해 원죄론을 비롯해 갖가지 의견을 내보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화살촉의 리더였던 이동욱이 김정철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고지 받은 시간이 아기의 시연시간 5분 뒤라고 알려오자 이동욱을 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죽게 되는 메시아로 명명하고 이를 이용해 상황을 타개하려한다.

작중에서는 이들도 김정철과 전혀 다른 게 없이 물욕에 찌든 사이비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묘사된다. 소도를 파헤치기 위해 김정철이 유지사제에게 권능을 부여할 때도 단순히 이런 동작이 유치한거 같으니 바꿔달라는 식의 진지하지않고 의미없는 일이나 수행하고 있었으며, 튼튼이가 고지를 받은 것으로 인해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도 교리 변경에 따른 의견 충돌이 커져 나중엔 교리라는 주제도 어디로 내버렸는지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서 "당신이 원죄론을 알거나 하느냐"면서 초딩 수준 말다툼을 벌이는 등 근엄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

3.5. VIP[편집]

VIP

지옥 VIP

2022 년 박정자 시연 당시 모습

등장회차

시즌 1 2 화, 3 화, 5 화

시즌 2 3 화

얼굴에 흰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들. 새진리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고 시연을 관람한다. 이들이 새진리회의 간부들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나, 5 화에서 여의도 새진리회 본부 내 스튜디오에서 시연 방송을 중계할 때 똑같은 양복과 가면을 쓰고 1 열에 나란히 앉아 시연을 관람하는 모습으로 나와 뒤에서 민트색 항공점퍼를 입고 서 있는 새진리회 간부들과는 별개의 인물들이다.

시즌 2에서는 시즌 1의 회상씬에서 등장한다. 대부흥회에서 등장하는 부활자 박정자 양 옆으로 VIP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정장차림으로 착석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가면은 쓰고 있지 않다.

거액의 돈을 후원하고 그 대가로 가면을 쓰고 쇼를 관람하는 갑부들의 모습이 오징어 게임의 오마주라는 오해가 있는데, 웹툰판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30억이 저기서 나왔냐는 대사도 동일하다.

4. 화살촉[편집]

4.1. 이동욱[편집]

틴톡 TV 방송인

이동욱

李東旭 | Lee Dong-wook

지옥 이동욱

소속

틴톡 TV[66] (인터넷 방송인)

화살촉 (초대 수장)[67]

등장회차

시즌 1 1화 ~ 3화, 6화

배우

김도윤[68]

더빙

일본 국기 츠루오카 사토시

미국 국기 제임스 카이슨

Play: Video

“신이 활시위를 당기면, 우리는 날아가야지요! 화살촉! 화살촉! 화살초오오옥!!”

새진리회를 광적으로 신봉하는 화살촉의 우두머리이자 선동꾼. 1~3 화 시점에서는 해골 모자를 쓰고 온 몸에 형광 물감을 바르고서는 틱톡 TV[69]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고지를 받은 자들과 그들의 가족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털이 방송을 하고, 그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대로 아님 말고식의 모함을 하는 사이버 렉카로 나타난다.[70] 방송을 하면서 화를 내는 등 감정을 표출할 때 키보드 샷건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송의 네임드 시청자인 홍은표(진경훈의 동료 형사) 등 정보력이 우월한 몇몇 시청자들이 신상을 계속 전달하면서 시연 대상자를 사회적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소도법률사무소 등 새진리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도 선동한다.

3 화 이후로 등장이 없다가 6 화에서 피폐해진 최종 보스로 재등장. 처음에는 민혜진 변호사와 배영재 부부의 폭로를 도울 방송인으로 소개되지만, 카메라가 방안의 해골머리 분장을 비추며 그때 그놈임을 확인해준다.[71][72] 정진수의 시연과 김정철의 의장 부임 이후인 2023 년 어느 날 방송이 끝난 직후 “3 년 뒤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고는 “새진리회가 말하는 정의는 모두 지키면서 살아온 내가 왜 지옥에 가는가?”라는 의문이 들어 신앙을 버리고 피폐해졌으며, 나중에는 배영재 부부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아기의 시연 예정 시간이 자기 시연 예정 시간 불과 5 분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정철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묻는다.[73] 어떻게든 아기의 시연을 덮고자 하던 김정철은 이동욱을 꺾 생각으로 “당신은 신이 실수로 아기를 죽이는 걸 만회하기 위해 대신 죽을 메시아다”라고 아첨한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지를 받았다고 억울해 하던 이동욱은[74] 메시아라는 말에 신의 의도를 이해한 듯이 다시 광기에 휩싸인다. 그리고는 이런 영광을 사제놈들에게 줄 수는 없다면서 기습적으로 소도 대원들을 습격해 죽이고는 민혜진과 배영재 일가까지도 모두 죽이려 시도하지만 민혜진에 의해 저지당한다. 이후 부부의 희생으로 아이가 살아나자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황해다가 갑자기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려하지만 역시 민혜진에 의해 저지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욱의 시연 시간이 되자 사자들이 다시 나타나 잔인한 시연으로 죽음을 맞는다.[75]

이 인물의 인터넷 방송 장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기괴한 분장이나 고성방가 등 지나치게 조악하고 1 차원적이면서 손발을 오글거리게 만드는 어색하고 과장된 연기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 시청을 포기할 정도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76], 실제로 해외 SNS 에서도 너무 시끄럽고 기괴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 감독은 의도한 연출이자 프로파간다성 스피커의 리얼한 표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모습의 시각적 실체화로 인해 불쾌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기사 참고로 미국 더빙은 이동욱의 광기를 조금 중화했다면, 일본 더빙은 오히려 광기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다른 사람들의 신상을 끈질기게 잘 파헤치고 그들의 가족이나 거주지까지 털어서 화살촉 테러 행위를 선동하지만 정작 자신의 신상은 물론 얼굴까지 분장으로 가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이버 렉카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들의 내로남불 적인 모습을 참고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키보드를 내리치며 키보드 샷건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는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내려 친 키보드 샷건이 오히려 컬트적인 인기로 높아지는 인터넷 방송 문화를 풍자하는 것으로 보인다.[77]

4.2. 바람개비[편집]

화살촉 리더

바람개비

風車 | Mr. Pinwheel[C]

지옥 2 바람개비

소속

화살촉 (2 대 수장)

등장회차

시즌 2 1화 ~ 6화

배우

조동인

더빙

일본 국기 사토 세츠지

미국 국기 크리스천 바나스

시즌 2에 새로 등장한 화살촉 지도자. 시즌 1에서 이동욱이 고지를 받고 자취를 감춘 후 방송 채널을 이어받아 운영했으며, 그가 사망한 후에는 완전히 화살촉 세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헛살반 선생 오지원과 다른 화살촉들이 신에게 죄를 사면받겠다며 고지받은 자의 시연에 뛰어든 때, 자신은 한발짝 물러서서 게스트[79]와 함께 시연을 중계한다. 나중에 부활한 정진수를 만났을 때 자신은 정진수가 꼭 다시 나타나리라 믿고 시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다고 말했으나, 앞뒤 상황을 보면 정작 본인은 죽을 용기도 없고 남들만큼의 종교적 열정도 없으면서 단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위험한 일은 남들한테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권력만 누렸던 모양이다. 이후 정진수의 명령에 따라 화살촉 인원들을 불러모아 새진리회 본관으로 쳐들어가 갱판을 치고, 정진수의 귀환을 생방송하여 상황을 걸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게

한다. 정진수의 의도대로 박정자를 잡아 둘을 대면시켜주지만, 직후 정진수의 결말을 보면서 멘붕한다.

4.3. 오지원 (햇살반 선생님)[편집]

햇살반 선생님

오지원

吳智媛 | Oh Jiwon[C]

지옥(드라마 시즌 2) 캐릭터...

소속

햇빛유치원 (햇살반 담임)

화살촉 (단원)

가족

천세형 (남편)

등장회차

시즌 2 1화 ~ 3화

배우

문근영[특별출연]

더빙

일본 국기 야마네 마이

미국 국기 트리아 리영

Play: Video

Play: Video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나 오지원 아니야. 신의 의도에 헌신하는 화살촉, 햇살반 선생이야.

바람개비와 함께 광신도들을 이끄는 화살촉의 핵심 선동가.[82] 평범한 인간이 정진수가 만들어놓은 세상 아래 어떻게 광신도가 되고 파멸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

원래는 천세형의 아내이자 유치원 교사로 평범하게 살았다.[83] 2022년 어느 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주명훈의 시연 뉴스를 접하며 그것에 처음 몰입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진수의 설교에 점차 심취되더니, 박정자의 시연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후로는 광신 상태에 빠져든다. 튼튼이(배재현) 사건에 있어 화살촉이 새로운 해석을 내세우자 그 상태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며 시연 현장에 화살촉 무리와 함께 뛰어들었다가 오른쪽 팔을 잃는다. 하지만 같이 시연에 뛰어든 다른 화살촉들은 타죽었는데 자신은 한쪽 팔만 잃고 살아남은 일로[84] 신에게 죄를 용서받은 자로 유명세를 얻어 광신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급 인사가 된다. 손목을 잃은 후로도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매일같이 방안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자신이 또 죄를 지은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시연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는다.[85]

5. 소도[편집]

5.1. 공형준[편집]

한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형준

孔亨峻 | Gong Hyeong-joon

지옥 공형준

소속

한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비밀단체 소도 (대원)

가족

공연재 (딸)

등장회차

시즌 1 4화 ~ 5화

배우

임형국

더빙

미국 국기 폴 나카우치

나한테 닥친 이 불행을, 다른 무엇도 아닌 불행 그대로 온전히 슬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소도의 일원. 딸이 지옥의 사자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시작으로 소도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JTN의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현상인 '증발'에 대해 사건을 논하는 것으로 첫 등장하며, 평소 새진리회에 불만이 많은 배영재가 그를 눈여겨본다. 이후 배영재의 사수인 강준원의 아내의 부탁을 받고 시연 예정 장소로 찾아온 강준원을 증발시키다가 배영재와 직접 만나게 되었다.

이후 배영재가 한국대 교수실로 직접 찾아와 아기가 고지를 받았으며 소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 주고, 아기의 시연을 공개하자는 민혜진의 말에 반발하는 배영재에게 과거에 천사에게 자신의 딸을 잃었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바꾸게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소도 조직원 김근배의 배신으로 덜미를 잡히게 되고, 자신의 뒤를 밟은 새진리회로 인해 제압당한 뒤 화살촉 대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용 불가마에 산 채로 넣어져 분살(焚殺)당한다.[86] 《지옥》 시리즈 세계관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초자연 현상 ‘고지’에 대한 인류의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5.2. 김근배[편집]

김근배

金謹裴 | Kim Geun-bae

지옥 김근배

소속

비밀단체 소도 (대원)

가족

O 수정 (아내)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5 화

배우

고동형[87]

더빙

미국 국기 빅 차오

시연된 후 새진리회로부터 '국내 16 호 죄인'으로 명명된 여자 사채업자[88]의 아들로, 비밀단체 소도에 가담했다. 강준원의 시연을 숨기기 위해 강준원이 사채를 써서 밀항했다는 시나리오를 진행시키다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부자연스럽던 사채업자라는 의심을 사서 결국 새진리교에게 발각된다. 본인에게 행해지는 고문은 견뎌냈지만 아내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지자[89] 결국 소도를 배신하고 핵심 간부인 공형준의 신상을 불어버린다. 이후 화살촉에 의해 공형준과 함께 분살당하고 시신이 내걸린다.

5.3. 김성집[편집]

김성집

金成集 | Kim Sungjip[C]

지옥 2 김성집

소속

비밀단체 소도 (지부장)

등장회차

시즌 2 2 화 ~ 6 화

배우

홍의준[91]

더빙

일본 국기 츠나시마 고타로

미국 국기 피어도어 친

시즌 2의 신규 인물. 시즌 1 이후로 소도도 규모가 커져서 여러 지부로 나뉘어 활동하는 중인데 그 중 남부 지부의 리더를 맡았다. 또 다른 직업은 태권도 관장이며 자식도 있다. 민혜진과 다른 지부 리더들이 의견 충돌을 빚을 때면 중재한다. 민혜진을 소도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인물로 존중하기는 하지만, 민혜진이 자기 신념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무모하게 움직이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민혜진이 다른 리더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자를 구출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자기도 반대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구출작전을 세운다고 하며 적극 나선다. 알고보니 몰래 이수경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돕기도 하고 이용도 하는 사이였고[92], 이수경에게서 박정자를 구출하라는 제안을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수경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아이들에게 그나마 조금은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수경의 외침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받아들인다.

후반부까지 민혜진을 도와 박정자를 구출하지만 박정자를 구출한 뒤 어느 폐차장에서 민혜진에게 총을 쏘며 적대 관계로 돌변한다. 박정자를 살려두면 앞으로 새진리회와 화살촉이 서로 박정자를 데려가 이용하려 할테니 죽여야 한다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새진리회도, 화살촉도 아닌 자기 신념만 지키려는 민혜진이라고 일갈을 날린다. 민혜진과 격렬히 싸우는데 태권도인답게 발차기와 무릎차기로 공세를 퍼붓는가 싶더니 복싱 스타일로 전환한 민변에게 목사발이 나게 두들겨맞다가 기습적인 서브미션 이행 트라이앵글 초크에 걸려 기절[93]하고, 민혜진은 수감으로 김성집의 손목을 폐차에 연결하고[94] 열쇠를 손이 안 닿는 거리에 두고 떠나버린다.[95]

6. 주변 인물[편집]

6.1. 민혜진의 주변 인물[편집]

6.1.1. 민혜진 모[편집]

민혜진 모

지옥 혜진모

가족

민혜진 (딸)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배우

원미원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암 말기 환자이지만 담배를 몰래 피우는 등 완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박정자의 시연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민혜진이 그녀를 데리고 함께 캐나다 밴쿠버로 망명하려고 했지만[96]민혜진이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들어간 사이 나타난 화살촉 대원에 구타당해 중상을

입었고,[97]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민혜진을 알아본 의료진들이 고의로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98][99][100]

6.1.2. 박영호[편집]

소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영호

朴英浩 | Park Yeong-ho

지옥 박영호

소속

소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배우

이돈용[101]

더빙

미국 국기 켜 심

소도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비록 엔딩 크레딧에는 '박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나, 2 화 중 민혜진이 그를 두고 "박영호 변호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따르면 이름은 '박영호'이다.

민혜진과 함께 박정자를 최선을 다해 돕지만 시연이란 건 거짓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연이 거짓이라는 게 생방송으로 나가면 박정자는 30 억을 받고 새진리회만 개망신당할 거라는 생각에, 새진리회와 박정자 간의 생중계 계약을 성사시킨다. 그러면서 어느 방송국이 생중계 제안을 받아들여줬냐고 호언장담하지만 시연 전날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국이 생중계 제의를 받아들이고, 새진리회의 교리대로 사자가 나타나 박정자를 죽이자 망연자실한다.

이후 이동욱의 선동 방송을 본 민혜진이 급히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민혜진이 법률사무소에 왔을 때 간신히 연락이 되었는데, 그는 이미 화살촉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큰 부상을 입은 뒤였다. 박 변호사는 민혜진에 이제 그만하자고 울먹거리며 도망치라고 말하고, 주위에는 어질러진 서류가방과

박 변호사의 처참한 몰골을 찍는 시민들, 그를 가리키는 화살촉의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이후 등장하지 않는다.

6.2. 진경훈의 주변 인물[편집]

6.2.1. 진희정[편집]

진희정

陳熙庭 | Jin Hee-jung[B]

지옥 진희정

가족

진경훈 (아버지)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시즌 2 1 화, 2 화, 6 화

배우

이레[103]

시즌 1 엄서현(아역)

시즌 2 허예슬(아역)

더빙

일본 국기 이이노 미사코

미국 국기 잔시 후인

진경훈의 외동딸로[104]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105], 학원도 빠지고 새진리회의 집회에 참석해 자원봉사를 한다. 결국 정진수와 함께 어머니를 죽인 범인의 심판을 결탁하고, 그 과정에서 범인을 전기충격기로 기절시켜 운반함으로써 범죄에 관여하게 된다. 결국 범인은 산채로 소각로에 불타 죽고 그 광경을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섬뜩하게 웃으며 바라본다. 이후 해당 시체는 '악인을 지옥이 심판한 또다른 증거'로 조작되어 새진리회의 프로파간다로 쓰이게 된다.

일반적인 클리셰대로라면 주연 형사(진경훈)가 사이버 종교집단(새진리회/화살촉)에게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해 작품 내내 분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겠지만, 작중 4 화부터 주역이 바뀌면서 이런 스토리는 따르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정진수에 의해 집에서 다시 아빠와 조우한다.[106][107] 새진리회가 대한민국을 장악한 시점에서의 행적은 불명.

시청자들의 대략적인 평가는 아빠 속을 제대로 썩이다 못해 그 가슴에 비수까지 꽂아넣은 불꽃소년. 물론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 때문에 정진수의 유혹에 넘어간 케이스다보니 불쌍한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기엔 아빠와 세상을 상대로 벌여놓은 갯판이 너무 수준급(...)인데다[108] 마지막엔 아예 정진수의 사상에 동화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니 빌런 취급 받는데서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20241027 215748

시즌 2 에서는 말기 암 환자로 아버지의 간호를 받아가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왔다.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도 정진수에 대한 신앙과 김정철에 대한 비판을 계속 온라인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중간에 완치된 듯했지만 다시 재발하면서 의사 말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죽음을 앞에 두고 심신이 피폐해지며 더욱 정진수에게 심취한 모습을 보이지만,[109] 마지막 순간에는 그토록 찬양하던 정진수가 아닌 엄마가 살아있을 때 어린 자신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며 숨을 거둔다.

6.2.2. 홍은표[편집]

서울서북경찰서 형사

홍은표

洪恩表 | Hong Eun-pyo

지옥 홍은표

소속

서울서북경찰서 강력 4 팀 (형사)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배우

박정표

더빙

일본 국기 산페이 유우키

미국 국기 마이클 센

진경훈의 파트너 형사. 새진리회를 사이비 종교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합성역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이 물러터져서 백날 잡아도 다 풀어주는데 지옥이라는 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110] 사법불신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더니, 그런 경향이 점차 새진리회를 향한 광신으로 이어진다. 박정자의 고지 때문에 새진리회, 민혜진, 박정자와 접촉한 직후부터 화살촉 이동욱의 신상털이 방송에 들락날락하며 ‘순응자 38’이라는 닉네임의 네임드 시청자가 되더니, 최종적으로 박정자의 자녀들을 도피시키기로 협의한 날에는 그렇게 신상이 퍼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창에 박정자 일가의 신상을 까며 트롤링을 시작했으며, 박정자 시연 당일엔 사자들이 나타나자마자 기쁨을 참지 못해서 광소하다가 시연이 이뤄진 직후에는 앞장서서 박정자의 시신에 절을 한다. 이후로는 진경훈의 등장이 없어 등장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에게 있어서는 진희정과 함께 본편 전반부 최악의 트롤러로 꼽히는 캐릭터로, 희정이 고난에 빠진 사람의 사이비 신도화를 보여준다면 홍은표는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캐릭터이다.[111]

6.2.3. 반장[편집]

서울서북경찰서 형사

반장

지옥 반장

소속

서울서북경찰서 강력 4 팀 (반장)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배우

이동용[112][113]

서북경찰서 강력반장이자, 진경훈의 선배다. 진경훈의 아내가 살해당했을 때부터 함께해왔다.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못한 진경훈에게 곧잘 버럭하며 성을 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과거 사정을 고려하여 내심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첫 시연자의 부검 결과가 이 세상에는 없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나오자 이걸 어떻게

보고하냐고 달달 볶는등 작중 내내 스트레스에 찌들어있는 상관의 모습이다.
박정자 시연 생중계 때 사자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사격명령을 내리지만 특공대
저격수들은 전대미문의 재앙을 눈 앞에 직접 목격한지라 쏘지 못했다. 박정자가
시연 당한 뒤 절을 올리는 사람들을 망연자실하며 쳐다보는 민혜진, 박
변호사와는 다르게 아연실색을 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이후 등장은 없다.

6.3. 배영재의 주변 인물[편집]

6.3.1. 배재현[편집]

송소현의 아기[114] | 튼튼이[115]

배재현

Our Little Fighter

지옥 튼튼이

지옥 2 배재현

출생

2026 년 (0 세)[2026 년]

가족

배영재 (아버지)

송소현 (어머니)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시즌 2 2 화, 6 화

배우

시즌 1 서아린[117]

시즌 2 오은서

더빙

일본 국기 키우치 유카코

미국 국기 미아 린 방난

배영재와 송소현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기. 태어나고 얼마되지 않아 천사의 고지를 받았으며, 해당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태명은 '튼튼이'이고 신생아라 정식 이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송소현의 아기'라고 불리면서 고지를 받는다.

부모의 동의 하에 민혜진은 출생한 지 며칠 밖에 안 되어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한 아기마저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방송으로 퍼뜨렸고, 새진리회는 이 아기의 시연으로 자기네 존립기반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시연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 든다. 이 와중에 이동욱이 미쳐날뛰 탓에 원래 시연을 생중계하려던 장소로 가지는 못했지만, 대신 이동욱의 집이 있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 중앙 마당에서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알리는 가운데 시연이 행해진다. 사자가 나타나 아이를 공격하려하지만 부모인 배영재와 송소현이 아이를 보호하고 대신 희생한 덕에 목숨을 건진다. 이로 인해 고지를 받았음에도 살아남은 최초의 사례가 되어 존재만으로도 향후 수많은 떡밥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다.[118]

시즌 2에서는 배재현이란 이름으로, 버려진 유스호스텔 건물 지하의 소도 아지트에서 민혜진 및 다른 몇 명의 소도 멤버들과 살고 있다. 안전 문제도 있고, 시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를 찾기 위한 연구 대상이기도 해서, 철저히 외부와 격리된 채 살고 있다. 같이 지내는 사람 중 민혜진을 특히 좋아한다. 소도 멤버들은 배재현의 생존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편집증적으로 감시하는데, 산책을 나갔다가 주워온 장난감을 몰래 꺼냈을 때조차 그게 무엇인지 캐물으며 억박지를 정도였다. 민혜진은 소도의 이러한 방침에 점차 염증을 느끼면서 충돌하다가 결국 시즌 2 결말부에 배재현과 몰래 도주하게 된다.

추측건대 배재현이란 이름은 아빠 이름(배영재)과 엄마 이름(송소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것 같다. 민혜진이 아이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아이 부모를 기리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듯하다.[119]

6.3.2. 강준원[편집]

NTBC 프로듀서

강준원

姜濬原 | Kang Jun-won

지옥 강준원

소속

NTBC (프로듀서)

가족

아내

등장회차

시즌 1 4 화

배우

한우열

더빙

일본 국기 사사키 유스케

미국 국기 팀 당

배영재와 함께 일하는 NTBC 소속 PD. 배영재가 형이라 부를 정도로 친한 선배였으나 천사의 고지를 받고 잠적해버린다. 주변에는 사채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고 알려진 채로 잠적했으나 “소도일수”라는 가짜 일수대출 명함 뒷면에 써진 양평낙시터 주소를 찾아간 배영재와 시연당하기 직전 만나고, 곧이어 사자들이 찾아와 지옥으로 보내진다.[120]

민혜진 변호사와 공형준 교수의 지하조직인 ‘소도’의 도움으로 시연을 숨기는 데 성공한 인물로, 대외적으로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긴 끝에 인천항을 통해 밀항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강준원 실종 사건을 경찰을 대동해 수사하던 새진리회 유지 사제가 강준원이 소지하던 가짜 일수대출 명함을 보게 되었고 이후 천안에서 발견된 시연 대상자 또한 “소도 컴퓨터세탁” 명함을 가진 것을 확인하면서, 의도치 않게 소도와 새진리회의 대립을 촉발시켰다. 또 배영재와 소도 직원들이 처음 대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로, 여러모로 본편 후반부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담이지만 외국에선 해당 나라 버전으로 더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연 당하는 장면에서 영어 더빙이 가관이다.

6.3.3. 국장[편집]

국장

지옥 국장

소속

NTBC (국장)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5 화

배우

서영삼[121]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 심기를 건드려, 건드리길! 누군 임마...!

배영재가 근무하는 방송국 NTBC 의(JTBC 를 모티브로 한듯하다.) 국장. 새진리회가 언론, 공권력을 등을 장악한 세상에서 배영재가 새진리회에 반감과 회의를 품은 소수자를 상징한다면, 이 국장은 새진리회의 전횡에 순응하며 눈치를 살피는 다수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122] 새진리회가 NTBC 에 의뢰한 홍보영상을 놓고 유지 사제와 배영재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자, 어쩔 줄 몰라하며 유지를 달래며 비위를 맞추고 배영재에게는 유지의 요구대로 홍보영상을 수정하라고 지시한다.

6.3.4. 후배[편집]

배영재의 후배

지옥 편집기사

소속

NTBC (편집기사)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5 화

배우

고서정

NTBC 에서 일하는 배영재의 후배 직원. 배영재가 새진리회의 홍보영상물 수정 작업 때문에 이 후배를 찾아갔다가, 마침 이 후배가 작업하고 있던 다른 영상물에서 공형준 교수를 처음으로 보게 된다.[123]

6.4. 박정자의 주변 인물[편집]

6.4.1. 박은율[편집]

박은율

朴恩律 | Park Eun-yul

지옥 박은율

지옥 2 박은율

출생

2010 년 6 월 1 일[124] (12 세)[2022 년]

가족

박정자 (어머니)

박하율 (여동생)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시즌 2 6 화

배우

시즌 1 최형주

시즌 2 배현성

더빙

미국 국기 터커 찬들러

박정자의 아들로 나이는 12 세. 박하율과 함께 엄마의 생일을 축하해주다가
엄마가 고지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집에서 새진리회 축과 생방송 계약을
맺을 때 박정자의 말대로 방 안에 있다가 정진수가 박정자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궁금해하다고 말하자 방에서 뛰쳐나와서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가냐며 소리치다가 박정자에 의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박정자와
소도법률사무소 측은 자식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경찰 내 화살촉
프락치가 박정자와 자식들의 신상을 유포해서 신변이 위험해졌다. 다행히도
민혜진이 빠르게 손을 써서 즉시 항공기 표를 사고 공항으로 이동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민혜진의 친척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화장실 간 동생 박하율이 오지를 않자 비행기 내를 돌아다니며 하율을 찾아
데려온 뒤 비행기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그때 하율이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묻자 진실을 아는 은율은 울음을 터트린다. 여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빨리 철이 든 모습을 보여준다.[126]

시즌 2 초반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고 민혜진과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민혜진과 연락하며 지냈다는 사실만 드러난다.[127] 그러다가 마지막 화에서 드디어 등장한다. 민혜진이 박정자를 구출한 후 폐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차를 몰고 나타난다. 민혜진은 박정자한테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박정자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8년이 지났기에 알아보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믿을만한 사람이냐"고 묻는다.[128] 민혜진이 "앞으로 박정자씨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슬쩍 정체를 암시하지만, 심신이 피폐해진 박정자는 눈치채지 못한다.[129] 같이 차를 타고 가던중 은율이 눈물 흘리며 운전하는 걸 보고서야 눈치채고, 은율도 "하율이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라며 자신이 은율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130][131]

6.4.2. 박하율[편집]

박하율

朴夏律 | Park Ha-yul

지옥 박하율

출생

2017 년? (5 세)[2022 년]

가족

박정자 (어머니)

박은율 (오빠)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배우

김시하

더빙

일본 국기 후지타 마미

미국 국기 헤이든 칼더

박정자의 딸로 나이는 5 세. 박은율과 아버지가 다르다. 케이크를 들고 엄마의 생일을 축하해주다가 엄마가 고지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나 고지를

받는단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했다.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다가 신상이 유포되어 신변이 위험해지자 은율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민혜진의 친척집으로 가게 되었다.

시즌 2에서는 직접적인 등장이 없으나, 민혜진과 박은율이 나눈 문자에서 하울이가 잘 지낸다는 메시지 내역과 어머니 박정자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박은율의 하울이도 엄마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말로 근황이 언급된다. 오빠 은율이 12 세의 초등생에서 20 세의 성인이 되었으니 동생인 하울 역시 5 세의 어린이에서 13 세의 여중생이 되었을 것이다.

7. 시연을 당한 자들[편집]

7.1. 주명훈[편집]

국내 1 호 죄인[A]

주명훈

朱明訓 | Joo Myeong-hun

지옥 주명훈

출생

1986 년?

사망

2022 년 11 월 10 일 (향년 36 세)

주소

서울특별시 서북구 인하동 143-12

소천빌라 405 호

직업

무직

등장회차

시즌 1 1 화

배우

김규백[134]

더빙

미국 국기 제이슨 진

1 화 인트로에서 카페에서 혼자 스마트폰의 AOD 시계를 보며 벌벌 떨다가 1 시 20 분이 되자 갑자기 나타난 사자들에게 습격받는다. 한 대 맞고 나가떨어진 뒤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결국 사자들에게 붙잡혀 마구 구타[135]당한 뒤 불타죽으며 대한민국 1 호 시연자가 되었다.

2 화에서 나온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지옥불에 의해 변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북서 강력반장에게 보고된 내용은 '잔해는 유기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이라는 내용. 황당한 보고에 반장은 '벌건 대낮에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그게 어떻게 생물이 아니냐'라면서 격분한다.

7.2. 김진구[편집]

국내 11 호 죄인[A]

김진구

Kim Jin-gu

지옥 김진구

가족

아내, 아들

등장회차

시즌 1 4 화

배우

김두은

국내 11 호 죄인. 고지를 받고 시연이 두려워 주변에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거짓말하고 자살했다. 그러나 장례식 도중 반나체 형상의 영혼이 다시 현세로 불려져 시연을 받았다. 장례식장에서 시연이 벌어진 탓에 유족들은 김진구의 영혼이 지옥의 사자들에게 붙들린 후 무참하게 얻어터지며 시연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은 충격에 기절해버렸다.

짧은 등장이었지만, 죽음으로도 시연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극중 인물들에게 시연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규석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후세계나 영혼이 존재하는 세계관이라고 확실하게 설정해둔 건 아니고 사실 죽으면 끝인데 지옥의 사자들이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환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나 아님 애초에 새진리회에서 조작해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7.3. 송현섭[편집]

국내 27 호 죄인[A]

송현섭

宋玄燮 | Song Hyeon-Seop

지옥 송현섭가족

등장회차

시즌 1 4 화

배우

박정환 (송현섭)

유나 (딸)

김진 (아내)

이민호 (수어통역사)

새진리회에서 인터뷰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 인터뷰에서 등장.

본인이 아닌 딸이 아버지의 죄목을 대신 말하는데, 딸의 주장에 의하면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컴퓨터에 나쁜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138] 울먹거리면서 아빠의 죄를 고하고 아빠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한다. 이때 언급되는 죄들이 죽기에 마땅한 죄라기엔 지나치게 가벼운 내용들이다. 물론, 범죄는 잘못된 거지만 죽어서 그만한 범죄의 댓가를 치르기엔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

하지만 이미 지옥에 가는 것을 생생히 보게 된 사람들 안에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 잘못된 경중이 중요하지는 않았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무관용의 교리를 통해 이미 타 종교나 사법 기관을 통한 사회적인 교화는 그 기능을 상실한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시연당한 죄인의 가족들이 받는 사회적인 낙인과 핍박을 고려하면 새진리회는 이러한 공포로 교리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니 그야말로 정상적인 종교로는 볼 수가 없다. 사실상 영상을 찍고 편집한 당사자인 배영재 PD의 발언과 이후 밝혀진 사실들로 보아 이마저도 새진리회가 시킨 협박으로 만들어진 거짓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139]

7.4. 김영석[편집]

김영석

金永錫 | Kim Yeong-Seok

지옥 김영석

가족

어머니, 아내, 아들

등장회차

시즌 1 5 화

배우

장문규

더빙

미국 국기 코리 이

강준원이 시연을 당한 후 경찰과 새진리회가 강준원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새진리회에 검거되었다는 무전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대형마트에서 고지를 받은 뒤부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발견된다. 김영석 역시 강준원처럼 지하조직인 ‘소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소도 컴퓨터세탁’이라는 가짜 세탁업체를 통해 소도와 접촉했으나 유지 사제가 이 명함을 발견하면서 소도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거된 이후 여의도에 있는 새진리회 본부로 끌려가 팬티바람으로 시연장 무대에 세워졌고, 그의 가족들이 초대된 상황에서 김정철 의장이 불법 도박장 운영 등 여러 죄목을 대며 생방송으로 조리돌림을 한다. 그런 다음 지옥의 사자들이 찾아와 시연을 당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된다. 시연 직전까지 김정철 의장이 읊는 모든 죄목들을 부정하는데, 고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7.5. 공연재[편집]

공연재

孔妍梓 | Gong Yeon-jae

지옥 공연재

가족

공형준 (아버지)

등장회차

시즌 1 5 화

배우

변서윤

더빙

미국 국기 코트니 린

공형준의 딸. 회상씬에서만 등장. 아버지 공형준과 함께 바닷가를 드라이브하던 중에 천사에게 30 초 후 지옥에 간다고 고지를 받는다.[140] 그 직후 차 앞에 사자들이 찾아오자, 공형준이 사자를 피한다고 차를 꺾은 바람에 형준과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다. 그리고 그대로 사자들에게 끌려가 시연당한다. 시연당한 장소가 아무도 없는 바닷가였기에 그녀가 시연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은 형준밖에 없었다.[141]

7.6. 정경석[편집]

정경석

지옥 2 정경석

등장회차

시즌 2 1 화

배우

이성우

더빙

미국 국기 카일 오모리

죽음을 피하고자 자신이 받은 고지를 화살촉에게 알려 왔지만 시연 도구로만 쓰이는 인물. 수레에 결박당한 채 화살촉 집회에 끌려나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자백한다.[142] 비교적 덤덤하게 자백한 것과는 달리 막상 시연이 닥쳐오자 공포에 질려 지옥사자들로 부터 도망쳐 보려고 화살촉 무리에게 저항해 보지만 시연을 피하지 못한다. 시연 당할 때 햇살반 선생 오지원과 화살촉 우리들이 달려들면서 함께 죽는다.

7.7. 이철윤[편집]

이 여사

이철윤[B]

지옥 2 이철윤

등장회차

시즌 2 4화 ~ 5화

배우

임정선

시즌 2 에 등장. 극중에서는 이름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여사님'이라고만 부른다. 민혜진과 김성집이 박정자를 구하려고 새교의 선포식에 갔을 때, 김성집과 미리 약속하고 정혁상과 같이 나타나 합류했다. 이철윤이나 정혁상이나 착하고 양전해 보이기만 하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안 보여서, 민혜진은 저런 사람들과 같이 구출작전을 하는 거냐며 어이없어했다. 알고보니 고지를 받아 곧 시연을 당할 상태로, 시연으로 구출작전을 돕고자 왔던 것.[144] 시연이 임박하자 새교의 선포식 앞자리로 걸어가 박정자와 김정철 바로 앞에서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행사는 중지되고 대소동이 벌어진다. 원래는 이리저리 도망쳐 최대한 소동을 길게 끌며 민혜진과 김성집이 구출작전을 펼 시간을 벌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화살촉들이 같이 시연당하겠다고 달려드는 통에 바닥에 쓰러져 시연을 당한다.

7.8. 정혁상[편집]

정혁상

지옥 2 정혁상

등장회차

시즌 2 4 화 ~ 5 화

배우

오치운[145]

더빙

미국 국기 코리 이

시즌 2 에 등장. 민혜진과 김성집이 박정자 구출작전을 펼치려 할 때 이철윤(이여사)과 같이 와서 합류했다. 이철윤처럼 그 날 시연당할 사람이었고 그 점을 이용해 소동을 일으켜 구출작전을 도우려했다. 그러나 그 전에 화살촉들에게 붙잡혀[146] 새진리회 본부의 정진수 대리석상 앞에서 온갖 수모 겪는 광경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147], 결국 시간이 다 되어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광경까지 생중계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성집이 미리 정혁상의 가족을 피신시켰다고 하니 가족만은 안전할 것이다.

8. 기타[편집]

8.1. 김창식[편집]

살해범

김창식

金昌植 | Kim Chang-sik

지옥 김창식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2 화

배우

홍민수

대머리 사내. 진경훈의 아내를 10 년 전 살해한 범인으로, 마약 중독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징역 10 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감형되어 고작 6 년만에 출소했다.[148] 출소 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가 2022 년 11 월 13 일 밤 동네 슈퍼에서 소주를 사서 귀가하다가 정진수의 꼬드김을 받은 진희정에 의해 테이저건을 맞고 납치되었다. 희정과

진수는 김창식을 시골의 버려진 화장장에 데려가 산 채로 화장로에 집어넣어 불태워죽였다.[149] 이후 정진수가 그의 시신과 소지품들을 진양시[150]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 흩뿌려 놓으면서 마치 시연당한 것처럼 조작했다. 시신은 다음 날 기자들과 경찰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동욱은 방송에서 법이 심판하지 못한 범죄자를 신이 심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새진리회에 의해 대한민국 2호 죄인[A]으로 지정되었다.

8.2. 김광진[편집]

소설가

김광진

金光眞 | Kim Gwang-jin

지옥 김광진

직업

소설가

등장회차

시즌 1 1 화

배우

윤돈선[152]

더빙

미국 국기 아놀드 천

소설가. 합성역 시연 사건 이후 방송에 출연해서 화살촉의 행태를 '중세 신권 사회에나 있을 폭거'라고 비판했다가 이동욱의 지령을 받은 화살촉들에게 납치당해서 구타당했다. 화살촉은 김광진을 마구 구타하면서 용서를 빌라고 강요했고, 이동욱은 이 모습을 그대로 자신의 방송을 통해 송출했다.

이후 자신을 구타한 화살촉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 민혜진 변호사와 같이 진경훈의 경찰서를 방문하는데, 화살촉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진짜로 시연과 저승사자가 존재하면 어떡하냐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로는 등장이 없지만, 화살촉의 무자비한 행패와 새진리회의 선동에 점점 무너져내리고 있는 기존의 지식 및 도덕관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8.3. 택시운전사[편집]

택시운전사

지옥 택시운전사

직업

택시운전사

등장회차

시즌 1 6 화

배우

도용구[153]

저는 신이 어떤 농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안 그럴습니까, 변호사님?

시즌 1 마지막 화 맨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간 인물. 마지막 시연이 끝난 후 민혜진이 튼튼이를 데리고 나가 잡아탄 택시의 운전사다. 상처투성이인 민혜진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덮어놓고 큰길로 나가자고 하자, 룸미러를 통해 심상찮은 눈빛으로 민혜진을 흘끗 쳐다보더니 커브를 틀어 택시를 셋길로 몬다. 당황한 민혜진이 직진해야 큰길이 나온다고 말하며 혹시 새진리회 신도가 아닌지 의심하자, '그 길은 경찰들이 검문중이라 다른 길을 통해 큰길로 가야 한다'며 자신도 새진리회에 반감을 품고 있고 민혜진의 정체를 알면서 도와주려는 것임을 내비친다.

웹툰판에서는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경찰 일을 그만둔 진경훈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으나, 드라마판의 택시기사는 진경훈과 별개의 인물로 등장한다. 일각에서는 작중 언급되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새진리회 신자'라는 상황에 대비되는, 새진리회의 교리에 반대하지만 그 위세와 폭력성 때문에 그저 불만을 가지고 침묵하고 있을 뿐인 나머지 절반의 일반 대중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라는 의견이 있다.

9. 초자연적 존재[편집]

9.1. 지옥의 사자들[편집]

지옥의 사자들

使者 | Death Angels

지옥 티저포스터(2)

소속

지옥 (저승사자)

배우

시즌 1 윤영우[154], 송민수 (목소리)

시즌 2 스포일러

Play: Video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저승의 괴생명체들.

외관은 마치 머리카락을 뺀 듯한 섬유질 덩어리의 검은 예티로 보인다. 쿵하는 3 번의 굉음과 함께 시공간을 뚫고 등장하고,[155] 고지를 받은 자에게 지옥의 고통을 미리 시연해주려 죽일 듯이 때리거나 찌른 후 초고열로 불태워 죽여버린다. 보통은 이족보행을 하지만 이동욱에게 시연을 할 때는 유일하게 하반신이 연기처럼 변하여 빠르게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덩치는 보통 사람의 3 배에 달하고, 총탄으로도 뚫리지 않는 섬유질의 피부, 뜨거운 김이 솟아나는 고릴라같은 검은색 육체, 어마무시한 완력과 잔인함으로 공개일 발표 예고편부터 강한 인상을 주었다. 사실상 본작의 재앙 그 자체인 존재들. 모두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156] 여러 마리의 검은 괴물이 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거의 소멸시키는 행위는 까마귀가 시신을 뜯어먹게 방치하는 티베트 지역의 전통 장례 풍습인 조장이 모티브로 보인다.

오직 고지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만 움직이고 여타 다른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건드리지 않는다. 등장할 때에도 박정자 시연 때 군중들 틈이 아닌 박정자의 집 안쪽 문에서 튀어나온 것, 김영석 시연 때 좌석을 가득 채운 참관인들 사이가 아닌 무대 조명이 잠시 꺼진 사이 스테이지 위에서 조용히 나타난 것 등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방향 말고 웬만하면 허공이나 사람이 적은 곳에서 나타난다.

다만 3 화에서 진경훈이 총격을 가했을 때나 6 화에서 배영재와 민혜진이 대항하는 등의 제 3 자에 의한 시연 방해 행동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공격을 가하기도 하나, 역시 한 대만 때리거나 쳐날려서 제압하는 정도로만 한다. 하지만 주변 건조물이나 차들이 시연에 방해가 된다면 모조리 부숴버리며 이는 인파도 예외가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시연이 발생하면 인명피해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시연 대상자를 쫓아가며 주변을 초토화 시키기 때문에 시연이 발생한 장소는 무조건 아수라장이 된다.[157]

1 화에서 첫 등장 했을 때 달리기 속도가 도망치는 주명훈과 엇비슷한 점이나,[158] 사자의 주먹이나 손아귀를 피하는 장면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근력은 초인적이지만 움직이는 속도까지 초인적으로 빠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때도, 벽에서 이동육을 잡은 채로 미끄러지며 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는 꿈쩍도 못 할 것으로 추정된다.[159]

등장할 때마다 항상 셋의 개체가 몰려다니며, 시즌 내내 목적이나 정체가 밝혀진 바가 없다. 작중에서 묘사되는 것을 보면 땅이건 물 속이건 상관없이 시연이 가능하고, 고지를 받고 시연당하기 전 자살한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혼을 소환해 같은 행위를 한다. 이들의 시연을 거친 주검들은 특이하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으로 바뀌어버리고[160] 초반 시연 현장에서도 이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161] 태워죽이는 건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존재들이다.

시연을 당하는 사람들과 근접해 있는 사람들도 사망한다. 배영재, 송소현 부부의 아기에게 고지가 되었는데, 이 부부가 아기와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자 아기를 감싸안은 부부에게 시연을 시행했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니 아기만 따로 시연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정작 고지를 받은 아기가 생존하고, 두 부부가 사망했다.[162] 아기의 시연 부분에서 다소 의아한 점이 있는데 고지를 받은 아기 대신 부모에게 시연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고지 대상이 아무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었어도 사자들이 시연 대상을 잘못 찾는 법은 없었다. 거기다 배영재 부부가 서로가 떨어지지 못하게 묶고 있긴 했어도 사자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강제로 떼어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시연 대상이 아닌 존재를 둘이나 희생 시켰다는 것이 의아하다. 원래 시연 대상이었던 아기는 추후에 다시 고지가 되는 형식인지 아니면 시연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건 직후 박정자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큰 떡밥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즌 2 에서도 같이 시연을 받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살촉들이 시연을 당하는 사람을 감싸는데 이들도 모두 배영재, 송소현 부부처럼 분사했다.

최규석 작가와 주호민이 함께 한 인터뷰에서 최규석이 사자가 항상 3 인조로 다니는 건 맞지만, 나올 때마다 다른 개체가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맡은 고지만 처리하고 퇴장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 곳에 두 무리가 동시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시즌 2 에서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는데, 체형이 근육질에서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바뀌었고, 촉수가 생겼으며 얼굴도 눈코입이 기괴하게 살짝 뒤틀려 있는 등 보다 원작 웹툰의 사자들의 디자인과 유사해졌다. 또한 천세형의 회상 장면에서는 뾰족하게 생긴 팔다리를 이용하여 마치 거미처럼 보행하는 사자도 잠깐이지만 등장한다. 디자인이 바뀐 이유는 시즌 1 때 CG 를 담당한 회사가 망하고 새 회사와 협업해서라고 한다.[164]

9.1.1. 진실?[편집]

9.2. 천사[편집]

천사

天使 | Prophet Angel

지옥 2 천사

소속

지옥 (천사)

배우

시즌 1 정지소[특별출연][168]

시즌 2 한지우

“OOO… 너는 X 일(시간) 뒤… X 월 X 일 X 시 X 분에… 지옥에 간다…”[169]

드라마의 시작이자 만악의 근원. 원작보다 굉장히 호러스럽게 연출되어 천사란 말이 안 어울리는 위압감과 공포를 보여준다. 물론 천사라는 말 자체가 하늘(天)의 심부름꾼(使)라는 뜻이고 영어의 Angel 도 사신, 사절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앙겔로스(o Ἄγγελος)'에서 나온 말이니, 그들이 하는 역할이 천사의 역할인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170]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 언제 지옥에 끌려가는지 공지하고 사라진다. 사실상 이걸 조우하는 순간 자신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우주적인 공포와 함께 영원토록 ‘죄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새진리회의 재판의 대상이 되고, 그 가족들 역시 새진리회와 화살촉이 ‘죄인의 가족’이라며 신상을 털고 조리를 돌릴 운명이 된다. 박정자 사건으로 전국의 방송을 통해 퍼지면서 죄를 지으면 사자들에게 죽고 이를 예견한 새진리회를 믿으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두려움에 의해 국민의 과반수가 자발적으로 새진리회의 광신도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불식시켜야 하는 정부와 경찰도 튼튼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자들에게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절반을 신도로 끌어들이는 새진리회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 된다.

천사라는 호칭도 정진수가 임의로 붙인 호칭이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듯 하다. 보통 며칠, 몇 주, 몇 달 단위로 고지하지만 가끔 아주 먼 미래나 아주 가까운 미래를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171][172]

천사의 고지에는 '지옥에 간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지,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는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진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해석을 은근슬쩍 끼워넣은 것이 대중적으로 먹히게 된 것이다.[173]

이 작품의 가장 의문점이 많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방금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지옥에 간다고 공지하여서 천사의 고지가 죄인만 선고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기준도 없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고지한다는 사실이 작 후반부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러모로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은 작품 안에서나 작품 밖에서나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즌 2에서는 전국적인 대규모 고지로 모습을 비춘 걸로 보아 다수의 개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옥 시리즈의 첫 작품인 지옥: 두개의 삶에서도 천사가 여럿 존재한다는 묘사가 있었는데 이를 차용한 듯 하다.

9.2.1. 진실?[편집]

9.3. 지옥의 화염사자[편집]

지옥의 화염사자

지옥 2 화염사자

소속

지옥 (사자)[174]

등장회차

시즌 2 2화

정진수가 지옥에서 본 괴생명체. 외형 자체는 지옥의 사자들과 매우 유사하다. 아마도 이 생명체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지옥 그 자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니면 시즌 2에서 추가된 다양한 종류의 사자들 중 또 다른 아종 중 하나일지도.

5. 줄거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시즌 2'**는 시즌 1의 충격적인 결말 이후, 더욱 혼란스럽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박정자와 새진리회 초대 의장 정진수의 부활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지옥의 사자들이 정해진 시각에 나타나 사람을 끌고 가는 '시연'의 교리가 흔들리는 계기가 됩니다. 새진리회는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며, 사회 곳곳에서는 새진리회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부활의 시작

어느 날, 박정자의 육체가 의문의 힘에 의해 부활합니다. 박정자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은 박정자의 부활을 두고 여러 가설을 내놓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신의 새로운 메시지라 주장하고, 또 일부는 새진리회의 교리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외칩니다.

동시에 새진리회의 초대 의장 정진수 또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부활의 이유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새진리회 내부에서는 정진수를 다시 중심으로 세워 조직의 위기를 수습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심화됩니다. 특히, 새진리회 현 지도부는 과거 정진수의 방식과 현재 자신들의 방식을 두고 충돌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소도의 등장

한편, 민혜진은 시즌 1 이후 새진리회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소도’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합니다. 소도는 고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시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합니다. 소도는 점점 세력을 키워가며, 새진리회의 교리와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하지만 새진리회는 부활한 박정자와 정진수를 내세워 자신들의 교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칩니다. 정부 또한 새진리회의 힘을 이용해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수습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새진리회와 소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양측의 충돌은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달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화살촉의 반격

과격 집단 화살촉도 다시금 등장하며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합니다. 화살촉은 새진리회를 이단이라 규정하고, 자신들만의 교리를 내세우며 테러를 감행합니다. 이들은 새진리회 지도자와 관련된 인물들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을 이어가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화살촉의 리더는 새진리회의 부활 사건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부활이 신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과격한 계획을 세웁니다. 민혜진과 소도는 화살촉의 폭력성을 경계하며 그들 역시 또 다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정진수의 변심

정진수는 자신의 부활을 신의 처벌이 아닌 또 다른 시험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 돌아온 이유를 찾기 위해 고뇌하며,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교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진수의 이러한 태도는 새진리회의 현재 지도부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정진수가 새진리회의 가짜 교리를 폭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직 내부에는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박정자의 결단

박정자는 자신의 부활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하며 세상과 다시 대면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새진리회와 정부의 시도를 거부하고, 가족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부활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단서를 남기며 민혜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 지옥의 끝자락

결말에서는 새진리회의 교리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정진수는 자신의 죄책감에 휘말려 점점 광기에 사로잡히며, 자신이 지옥의 사자로 변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소도는 부활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지만, 박정자가 남긴 단서는 새로운 질문만을 던질 뿐입니다.

한편, 사회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또 다른 부활자가 나타나며,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던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지옥 시즌 2'의 메시지

이 시즌은 인간의 본성과 죄, 구원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혼란 속에서 신념을 지키려는 인간의 모습을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부활이라는 초현실적 사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종교적 열망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